

研究論文

한국전쟁 이전 맥아더의 對韓인식

이 상 호*

I. 머리말	IV. 도서방위선(offshore island defense perimeter)의 설정배경과 맥아더
II. 맥아더의 출생과 성장과정	V. 맺음말
III. 맥아더의 對韓 인식과 미군정과의 관계	

I. 머리말

한국전쟁에 관해 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사건을 결정짓는 인물에 대한 연구는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주로 당시 주요 인물 본인의 회고록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사실여부를 떠나서 사료적 가치와 객관성을 결여하는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전쟁기 일부 인물에 대해서는 신화화한 해석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극동군총사령관이자, 연합국최고사령관, 유엔군총사령관을 겸직하며 한국전쟁을 수행한 맥아더(Douglas MacArthur)이다

1998년 인하대 정치외교학과의 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인천 지역 청소년 117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인천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맥아더가 20.3%를 얻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전쟁을 확대하여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맥아더의 의지가 한국인들에게 강한 이미지를 주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을까?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통합과정 수료, 한국현대사 전공.

맥아더는 언론과 연구자들에 의해 다면적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군인으로 일평생 살아왔지만 그는 전쟁을 정치적 수단 내지는 더 나아가서 대통령을 향한 도약대로 활용하려고 기도하였다. 이러한 맥아더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행적에 대해서는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¹⁾ 그러나 이는 주로 트루만(Harry S. Truman)과의 논쟁을 둘러싼 문민정부의 군 통제권 문제, 미국의 대외정책의 우선 순위를 둘러싼 아시아주의자와 대서양주의자 사이의 대결 구도 속에서 맥아더의 정치적 목표와 의도, 일본의 경제부흥과 재건을 둘러싼 점령정책 등이 그 주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 한국현대사에 어떠한 문제의식이나 시사점을 제공해 주는 것은 별로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한국에 대해 맥아더가 해방 후 정치질서의 주조자 내지는 현대사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 성과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 군사(軍史)연구자들에 의해 맥아더의 전술 특히 인천상륙작전에 관한 논문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²⁾ 이외에 단편적으로 김수남과 최상룡, 그리고 한태호의 연구가 있으나 이 또한 맥아더의 대한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다.³⁾

-
- 1) 서구학계의 연구성과를 살펴보면 맥아더를 미국의 상징적인 군인으로 설정하고 그를 평가하는 일련의 저서들이 있다. James, Clayton D., *The Years of MacArthur: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5; Whitney, Courtney, *MacArthur-His Rendezvous with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56; Gunther, John, *The Riddle of MacArthur-Japan, Korea and Far Eas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1; 존 간서 著·姜永壽 譯 『英雄맥아더와 韓國動亂의 真相(建國社, 1952); Higgins, Trumbull, *Korea and the Fall of MacArthur-A Precipice in Limite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Schlesinger, Richard H., *General MacArthur and President Truman: The Struggle for Control of American Foreign Policy*, Transaction Publish, 1992; Manchester, William, *American Caesar*, New York: Laurel, 1978. 그러나 이와는 상반되는 평가로 맥아더를 독선적이며 이기적 기회주의자이자 자아도취적 소아병 환자라고 혹평하는 연구도 있다. Schaller, Michael,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2000; Smith, Robert, *MacArthur in Korea-The Naked Empero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 2)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 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2000);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2000).
 - 3) 김수남은 트루만과 맥아더의 논쟁을 통해 미국의 문민통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최상룡은 천황제유지와 관련한 맥아더의 일본정책을, 그리고 한태호는 맥아더의 대일점령정책의 개요를 논의하고 있음으로 맥아더를 주제로 한국과 관련하여 연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상룡, 「맥

문제는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현대사의 한 주역으로서 아직도 맥아더를 신성시하거나 그의 해임이 미국의 권력투쟁의 희생물로 평가받고 있을 뿐 반공주의자로서 남한에 자신의 이념적 의도를 투영시키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의 군사적·정치적 의도는 간과되어 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전쟁 기간의 전쟁 수행만이 연구대상이 됨으로써 해방 이후 하지와 더불어 남한 정치 질서의 주조자였던 맥아더의 한국문제에 관한 인식과 정책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연구 성과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글에서는 맥아더의 주한미군정에 대한 관할권의 시기 문제와, 애치슨의 선언에 포함된 도서방위선(offshore island defense perimeter)의 설정에 있어서 맥아더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전쟁 발발 이후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했던 맥아더의 對韓인식과 정책에 비해 한국전쟁 이전에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검토함으로써 한국현대사에서 잘못 알려진 그의 면모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II. 맥아더의 출생과 성장과정

맥아더는 1880년 1월 26일 현재는 아칸소주(Arkansas State)의 리틀락(Little Rock)의 일부가 된 지역의 군용건물인 닷지 요새(Fort Dodge)에서 태어났다. 맥아더 가문은 스코틀랜드 출신으로써 캠벨(Campbell) 가문의 후예이다. 그는 아더 맥아더(Arthur MacArthur)와 핑키 하디(Pinky Hardy)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⁴⁾ 부친 역시 군인이어서, 맥아더는 어려서부터 친근감 있게 군인이라는 직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다.⁵⁾

맥아더의 가계에는 약간의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세계2차 대전을 주도하던 당대의 세기적 인물들과 혈연관계에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서구의 혈연관

아더의 일본점령과 친황제, 『亞細亞研究』, Vol. 33 No. 1(1990); 한태호, 「美國의 對日占領政策과 Douglas MacArthur」(1)~(3), 『日本學報』 Vol. 14 No. 1; Vol. 16, No. 1; Vol. 18 No. 1(1985~1987).

4) 맥아더의 형 가운데 하나는 일찍 병으로 사망하고, 그 아버지와 이름이 같던 아더(Arthur) 역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였으나 40대 후반에 사망하였다.

5)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p. 336

계가 동양적인 관계와 같은 절대성을 지니지는 못하지만 이것 역시 인간세계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맥아더의 고조모는 사라 바니 벨처(Sarah Barney Belcher)로서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프랭클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역시 그녀의 후손이다. 즉, 맥아더는 처칠과 8촌간이며 루즈벨트는 6촌간의 혈연관계를 갖는다.

성공회 계통(Episcopal)의 신앙을 가진 맥아더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주로 군용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며 소년기를 보냈다. 1899년 6월 13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⁶⁾ 졸업 후 맥아더의 주요 약력과 생애과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 1903년 6월 11일 소위로 임관 제3 공병대대에 배속되어 필리핀으로 파견
- 1905년 7월 13일 태평양 사단의 공병참모 보좌관으로 발령
- 1905년 10월 3일 육군성의 지시에 의해 부친인 아더 맥아더(Arthur MacArthur)의 부관으로 임명됨
- 1906년 가을 응용공학 기술학교 위탁교육
- 1918년 8월 84여단장
- 1918년 11월 최연소 42사단장
- 1919년 6월 12일 육사교장에 취임
- 1922년 마닐라군관구 사령관에 임명됨
- 1925년 1월 17일 소장 진급 필리핀 사령관으로 취임
- 1930년 11월 21일 대장 진급과 함께 육군참모총장에 취임
- 1935년 필리핀 군사고문
- 1937년 12월 31일 전역
- 1941년 7월 26일 소장으로 재임명
- 1941년 7월 27일 중장으로 진급
- 1941년 12월 18일 대장으로 승진
- 1942년 4월 18일 남서태평양지구총사령관(CINCSWPA)에 임명

6) 맥아더는 4년간의 재학기간에 2470점 만점에 2424.2점을 따내어 평균 98.14로 당시 역대 3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았다.

7) Tucker, Spencer C., Edito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Santa Barbara: ABC-CLIO, 2000, pp. 399~403.

- 1943년 공화당 전당대회에 대통령 후보 예비선거에 참여
- 1945년 4월 3일 태평양사령부 지상군 사령관
-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최고사령관에 임명
- 1946년 4월 11일 현역원수에 임명
- 1951년 4월 11일 태평양지구사령관, 연합국최고사령관 직위에서 해임
- 1964년 4월 3일 월터 리드(Walter Reed) 미 육군 병원에서 사망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맥아더는 그의 생애 가운데 30여 년을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했다. 이러한 그의 근무 경험은 그가 아시아 우선주의자로 대표되는 한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맥아더의 약력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그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는 對아시아관과 소련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05년 10월 필리핀으로 발령을 받은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기 전에 맥아더는 베버리지(Albert J. Beveridge)의 유명한 연설문을 읽었다 “태평양을 지배하는 힘은... 곧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다.” 이는 맥아더의 관찰과 상통하는 말이었다. 보다 후에 맥아더는 이 여행이 “의심할 나위 없이 나의 전 생애를 준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미국의 존립 그 자체 그리고 미국의 장래는 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의 전초기지들과 불가분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여행은 내가 극동으로 되돌아가기 16년 전의 일이었는데 아시아에 대한 신비적 감정은 항상 나를 매혹시켰다”고 기술하였다.⁸⁾

즉, 맥아더는 최초의 아시아 여행에서 서부 태평양과 인도양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진정한 역사적 의의와 운명관을 느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즉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미래 세대들을 지탱할 만한 원료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맥아더는 미국의 존재 자체는 물론, 그 장래까지도 아시아와 그 주변의 섬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⁹⁾ 맥아더의 이러한 초기 對아시아관은 이후 군부나 워싱턴 정가에서 대서양주의자들과의 논쟁에서도 지속되었다. 초급장교 시절의 아시아에 대한 동경이 1,

8) Manchester, William, *op. cit.*, p. 79.

9) MacArthur, Douglas, *op. cit.*, p. 32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도 지속적으로 맥아더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것이다.

1930년 육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한 후 미국의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시절에 맥아더는 퇴역군인들이 생존권 확보를 위해 거리 시위를 하는 것을 껴게 된다. 즉 1932년 말 체대군인들이 연금인상을 주장하며 워싱턴 지역에서 시위를 전개하였던 것이다. 이를 보너스행진(Bonus March)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맥아더는 육군참모총장으로써 이 시위를 진압하였다. 자신의 명령으로 시위대들에게 발포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자 맥아더는 이를 소련의 음모에 의한 사건으로 단정하였다. 즉 모스크바의 지지와 지령을 받은 미국 공산당의 모략으로 시위대들이 폭력적으로 변모하였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의 목표는 이 소요가 혁명적인 무드를 조성하고 그것이 다른 도시로 과급되어 끝내 미국 전역에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평가했다. 맥아더의 반공주의는 철저히 소련에 대한 의구심과 반감으로 팽배해 있었다. 위의 경우를 살펴보면 맥아더에게 있어 아시아 우선주의와 반공주의의 형성은 그의 재임시절부터 지속되어 오랫동안 내재화되고 견고화 되어진 원칙으로 볼 수 있다.¹⁰⁾ 다만 이러한 맥아더의 對아시아관과 반공주의가 한반도에 투영되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에나 확고해진다.

III. 맥아더의 對韓 인식과 미군정과의 관계

1945~1948년 주한미군정기 역사에 있어서 맥아더의 직접 지휘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맥아더가 직접 한국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주요정책에 관여했다는 주장과 이에 반해 일본의 통치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그의 이해는 거의 전무하였다고 주장된다. 과연 맥아더의 미군정에 대한 지휘관계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한 해명은 한국현대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1937년 말 현역 군인에서 은퇴한 맥아더는 필리핀 주재 군사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 있기 5개월 전인 1941년 7월 26일에 미 육군

10) 맥아더의 아시아 우선주의와 반공주의가 해방 후 미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143~144 쪽

현역 소장으로 복귀하여 미 극동육군(USAFCE)사령관직을 맡게 되었다. 이 부대는 일본군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의 남진에 대한 필리핀 방위를 조직하는 임무를 맡았다. 그러나 일본군의 진격에 대한 정보보고를 묵살한 채 안이하게 대처했던 그는 1941년 12월 8일 결국 혼마 중장이 이끄는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필리핀 주둔 미군의 모든 병참물자를 잃고서 호주로 피신했다.

일본의 남방작전에 패한 미국은 1942년 4월 18일 영국,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합군 즉 남서태평양군을 결성하고 맥아더를 최고사령관(GHQ/SWPA)에 임명했다. 전세는 곧 반전되어 해전에서는 니미츠 제독(Chester W. Nimitz)이 산호해, 미드웨이, 솔로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지상전에서는 과달카날 반격작전 부나 작전, 레노 작전, 이오지마 작전, 오키나와 작전 등 상륙작전이 연이어 승리를 거두고 있었다. 1945년이 되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본토 상륙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이 때 맥아더는 태평양육군총사령관에 임명되어 일본의 항복과 점령을 맡을 미 태평양육군(USAFPAC) 병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받았다.¹¹⁾

이러한 일본본토 침공 작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1945년 2월 9일 몰타에서 열린 미영 합동참모회의에서 검토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 합참에서도 맥아더로 하여금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였다. 일본본토 및 한국을 포함한 주변 식민지국에 대한 상륙작전은 다운폴(downfall)이라는 암호명으로 1945년 4월 8일 최종안이 작성되었다. 그런데 맥아더는 이 작전과 병행하여 일본 및 그 식민지에 대한 점령계획안을 자신의 작전 참모들에게 준비할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블랙리스트(blacklist) 작전이었다. 이에 따르면 한국과 관련하여는 제1국면에 서울에 상륙하고 제2국면에 부산지역으로 상륙하여 북으로 진격하며 마지막으로 군산·전주·대구에 진주하는 계획이었다.¹²⁾

1945년 8월 11일 미 백악관은 동맹국들의 동의를 얻어 아시아 연합국 군대내의 최고 선임자인 맥아더를 연합군최고사령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에 지명했고 그는 8월 15일 사령관직에 임명됐다.¹³⁾ 결국 전쟁이 1945년 8월 15일 끝이 났고 다운폴 작전 보다는 진주계획인 블랙리스트 작전이

11) C. L. 호그 지음, 신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상)』(폴빛, 1992), 54쪽 각주 20번.

12) C. L. 호그, 위의 책, 54~55쪽; 竹前榮治, 『GHQ』(岩波書店, 1983), 14~19쪽.

13) 《New York Times》, 1945. 8. 12, 1면; Manchester, William, *op. cit.*, p. 514.

실행되었다. 그 후 1945년 10월 2일 정식으로 일본 및 그 주변 식민지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상 GHQ¹⁴⁾라 불리는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가 설치되었다.

전후 일본 점령정책을 수행했던 맥아더의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 General Headquarters of the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관부, G-1(인사), G-2(정보), G-3(작전), G-4(군수) 등 일반참모부와 민정국(GS), 경제과학국(ESS), 법무국(LS), 천연자원국(NRS), 민간정보교육국(CIE), 민간운수국, 일반회계국 등 점령과 관련한 전문부서로 되어 있었다. 최고사령부는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미 합동참모본부의 통제를 받았고, 일반 민정문제 관해서는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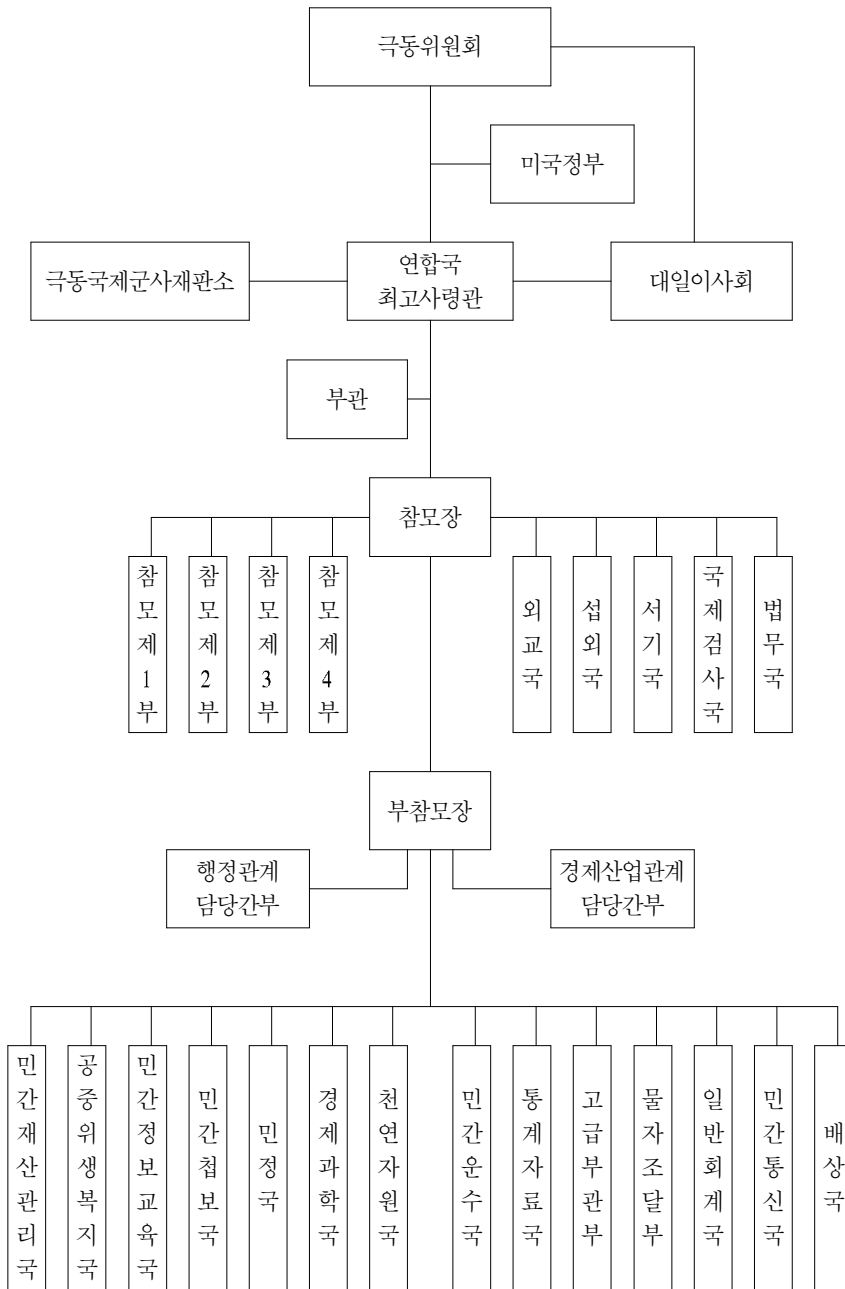
맥아더는 필리핀과 일본을 포함하여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대만 지역까지 권한을 행사하였다. 초기에는 군사부문을 비롯하여 민정까지도 담당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에 관한 지침과 정책 그리고 정보 수집은 참모장 아래의 일반참모부가 중심이 되었고 부참모장하의 각 국(section)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예를 들어 재일한국인 문제는 외교국이 담당하였고, 적산문제에 관해서는 민간재산관리국과 경제과학국이 관할하였으며,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G-2와 민간통신국 등이 관여하였다.¹⁵⁾ 즉 맥아더는 GHQ/SCAP의 조직을 통해 주한미군정사령부(USAMGIK)의 하지(John R. Hodge)에게 영향력과 실질적 지도력을 행사하였다. 물론 GHQ/SCAP은 전후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었으나 맥아더의 직위가 연합국총사령관이자 극동군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명확한 구분 없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¹⁶⁾

14) GHQ(General Headquarters의 약어)라는 말은 맥아더에 의해 만들어진 말이다. 원래 그가 육군참모총장이던 시절 전술항공부대설치를 구상하며 만들어낸 용어였다. 맥아더는 1942년 4월 남서태평양군을 조직했을 때 그 사령부에 GHQ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 용어는 미 태평양육군이 설치되고 후에 미 극동군을 개칭되었을 때, 일본 점령을 위한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가 존재하는 동안에도 사용되었다. 이 용어는 10여년에 걸쳐서 사용되었으며 특히 맥아더와 깊은 관계가 있던 용어였다. 竹前榮治, 앞의 책, 205쪽.

15) 竹前榮治, 위의 책, 60-70쪽.

16) 위의 책, 88-90쪽.

<표> GHQ/SCAP 조직표 (1947년 7월)¹⁾



예를 들어 하지 장군은 미소공동위원회 회담의 진행상황에 대해 GHQ/SCAP에 매일 보고했다.¹⁷⁾ 미국 대표단에 대한 정치적 지침이 1946년 1월 28일 승인되어 태평양사령부를 통해 하지 장군에게 발송되었다.¹⁸⁾ 맥아더 장군은 자신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할 수 있는 인물임에 비해 하지 장군은 맥아더의 책임에 의해 주로 크게 좌우되는 폭넓고 모호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과 한국의 점령정책에 대한 책임문제는 매우 달랐다.¹⁹⁾

그러나 이후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맥아더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비망록을 작성하였다. 1945년 12월 민정국(Civil Affairs Division: CAD)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문제와 목적의 차이에 비추어 하지 장군에 대한 합참(JCS)의 직접적인 채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안을 제기했다. 또한 이 문제는 1946년 1월 국무부 극동국장인 빈센트(John Carter Vincent)가 하지의 사령부는 직접 합참(JCS)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재론되었으나, 헐(Cordell Hull)은 한국문제를 해결할 때 맥아더 장군의 명성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²⁰⁾

이론상으로는 워싱턴에서부터 오는 지시들에 의해 맥아더는 통제를 받았다. 국방장관 패터슨(Wayne Patterson)과 국무장관 번스(James F. Byrnes)는 점령정책에 관해서는 맥아더가 아무런 발언권도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국무차관 딘 애치슨(Dean Acheson)도 점령정책에 관한 일들은 국무부, 국방부, 그리고 해군부가 수행해왔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국무부와 협의 없이도 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해외주둔 미군장교로 지목되었다. 더욱이 대통령으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통지를 받고 있었다.

기관은 임무 수행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기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어떤 계약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조건 항복에 근거한 것입니다. 기관의 권한은 최고의 것입니다.²¹⁾

17) C. L. 호그, 앞의 책, 285 쪽

18) 위의 책, 292 쪽

19) 위의 책, 348 쪽

20) C. L. 호그, 앞의 책, 263 쪽 각주 52 번

21) Lee, Clark and Richard Henschel, *Douglas MacArthu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52, p. 184; Gunther, John, *op. cit.*, p. 125; Manchester, William, *op. cit.*, p. 549.

이러한 맥아더의 권한 때문에 시볼드(William Sebald) 주일대사는 미 국무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려고 맥아더가 도쿄에 있는 다수의 국무부 책임자들과 한국의 개발 문제에 관해 협의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었다.²²⁾

그러나 남한에 대한 맥아더의 권한에 대해 이는 명목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실질적인 전권은 하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 올리버(Robert T. Oliver)는 오히려 하지가 한국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데 반해 맥아더는 다만 상징적인 상관에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명목상으로 하지는 맥아더사령부의 ‘휘하’에 있었으나 맥아더는 일본 점령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어 한국에 대한 문제에 있어 자유 재량권은 하지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는 맥아더 장군을 통하지 않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보고서를 보냈고, 따라서 맥아더의 권한은 애매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극동군총사령관으로써 맥아더의 관할지역에는 명백히 한국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단지 극동의 미 육군사령관으로서 그의 권한이 한국을 포함하고 있는데 불과했다는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한국문제 결정에 관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하지의 견해에 맥아더가 동의하고 있었다는 것이다.²³⁾ 다음의 전문을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 보인다. 한국문제에 관해 하지가 맥아더에게 보낸 전문에서 논평을 요청했을 때 맥아더는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내어 하지의 전권을 인정하였다.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귀관의 최선의 판단에 따라 행하라.
본관은 귀관에게 적절히 조언할 만큼 지역 내의 상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귀관이 내리는 결정은 어떠한 것이든 이를 지지할 것이다.²⁴⁾

즉 이 전문을 통해 보면 한국에 대한 결정과 그 책임은 하지에게 완전히 일임되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콩드(D. Conde)에 의하면 “하지는 1945년 12월의 모

22) Gunther, John, *ibid.*, p. 83; Manchester, William, *ibid.*, p. 552.

23) 로버트 T. 올리버 저·박일영 역, 『李承晩秘錄』(한국문화출판사, 1982), 117~119쪽.

24) 「하지중장이 맥아더원수에게」, *FRUS, 1945* Vol. VI, pp. 1133~1134; 「맥아더원수가 하지중장에게」, *FRUS, 1945* Vol. VI p. 1134.

스크바 회의에 이르는 4개월간 맥아더로부터의 직접 지시 밑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최상룡 역시 당시 남한에 대한 점령정책의 형식적인 명령계통은 미국 정부로부터 GHQ/SCAP, GHQ/SCAP 으로부터 USAMGIK 으로 되어 있으나 워싱턴·도쿄·서울 간의 정책결정간의 실태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점령초기에 군의 명령계통은 USAMGIK(주한미군정사령부) ⇔ GHQ/SCAP(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 ⇔ JCS(합동참모본부)의 형태로, 하지의 정치고문은 직접 국무장관 앞으로 보고를 하고 그 사본을 재일본 정치고문단에게 보냈으므로 통일적인 정책담당자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⁵⁾ 그러나 하지는 남한에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맥아더에게 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자문과 정책 집행의 승인을 요청하고 있었다.²⁶⁾ 더욱이 당시 국무부와 국방부의 합동기구와 GHQ/SCAP의 공식기록을 통해 보면 남한의 정책에 대한 계획과 결정에 있어서 맥아더의 관할은 1948년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47년 2월 7일 민정합동위원회(Joint Civil Affairs Committee: JCAC)는 합동전략 조사위원회(Joint Strategic Survey Committee: JSSC)와 공동으로 <한국의 군정에 관한 잠정지침: *Interim Directives for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을 합참에 제출했다. 여기서 5항인 권고 항목에서 한국에서의 미 극동군사령관(CINCFE)의 책임을 종식시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해를 넘겨 1948년 초반에야 이루어졌다²⁷⁾ 즉, 태평양 미 점령군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History of the Non-military Activities of the Occupation of Japan, 1945-51*』에 의하면 한국에 관한 특별 문제에 있어서는 GHQ/SCAP 산하 특별 참모부에 의해 연락을 취하였다. 한국에 관한 임무는 1947년 2월 13일 민정국의 관할권 제외를 시작으로 해서, 다른 8개의 특별 참모부(경제과학국, 천연자원국, 물자조달국, 공중위생복지국, 민간통신국, 일반회계국, 민간정보교육국, 통계자료국)의 관할권도 1948년 3월 13일자로 해제되었다²⁸⁾

맥아더의 회고록을 보면 1949년 미군철수 후 “한국은 나의 지휘에서 떠나 국무

25) 데이비드 콩드 지음·편집부 역, 『분단과 미국1』(사계절 1988), 34 쪽 최상룡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남, 1988), 63 쪽

26) 「하지가 맥아더에게」(1946. 7. 14, 8. 17, 8. 20), MacArthur Archives. RG 4, Box 1.

27) C. L. 호그 지음, 신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하) (폴빛 1992), 305-336 쪽

28) 高野和基, 『GHQ日本占領史 2: 占領管理の體制』(東京: 日本圖書センター, 1996), 72쪽

부가 맡게 되었다. 즉 군사 사절단의 직접 지휘를 포함한 미국 측 권익의 전면적인 관리를 국무부가 맡게 된 것이다”²⁹⁾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미군철수 직전 즉, 구체적으로는 1948년 3월까지 실질적으로 맥아더는 한국에 대한 관할 및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나중에 청문회에서 이러한 관할 책임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맥아더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강조하며 한국전쟁 이전에는 자신이 한국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였다.

IV. 도서방위선(offshore island defense perimeter)의 설정배경과 맥아더³⁰⁾

1950년 1월 12일 애치슨은 미국의 언론인을 상대로 한 프레스센터(National Press Center) 연설, ‘아시아의 위가: 미국정책에 대한 검토에서 도서방위선에 대해 언급하였다.’³¹⁾ 그의 이러한 발언은 이후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선 설정문제는 애치슨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맥아더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군 사령부의 전략적 견해가 반영된 주장이었다. 애치슨은 도서방위를 일본의 배후지와 결합시키는 ‘거대한 초승달(great crescent)’ 전략을 개발했으며 이는 봉쇄정책의 아시아판이었던 셈이다.³²⁾ 도서방위선(Offshore Island Defense Perimeter)의 전략개념은 이미 1948년 초에 이미 확고하게 정립된 것으로,³³⁾ 이는

29) MacArthur, Douglas, *op. cit.*, pp. 319~320.

30) 방위선 개념이 언제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방위선 개념은 냉전이 시작된 후 CIA가 처음으로 1947년 여름에 토의하였으며, 맥아더 역시 1948년 3월 케난과의 대화에서 이 방위선을 언급하였다.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자료총서 7』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Country & Area Files, Japan & U.S.S.R. (1947~1954)*.

31) Acheson, Dean, “Crisis in Asia: An Examination of U. S. Policy” *The Department of State Bulletin*(1950. 1. 16), 신복룡 편, 『한국해방전후사논저 1: Journals』(先人文化社 1998).

32) Cumings, Bruce, *op. cit.*, p. 414.

34) 개디스는 애치슨의 방어선은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상당한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Gaddis, John L.,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합참(JCS), 맥아더 극동사령부(FEC), 국무부, 국가안보회의 등 최고결정자 사이에 합의의 결과로 입안된 것이었다.³⁴⁾

우리는 아시아 대륙의 어떤 지역도 사활적 이익을 갖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군사공약은 하루빨리 청산해야 한다.. 오키나와는 알류산, 류큐, 전 일본점령도서, 팜을 포함하는 U자형 미국 안보망 중 가장 핵심적이고 전진적인 지점이다. 우리는 이 기지의 공군과 전진 해군력에 의존하여 아시아의 동해안, 북동해안에 위치한 대륙항구로부터 육, 해, 공군 합동군의 집결과 공격을 막아야 한다.

1948년 3월 맥아더는 케난(George F. Kennan)과 나눈 중요한 대화에서 그의 방어선 체계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설명했다. 즉, 미국은 ‘공격병력’을 포함하는 ‘U자 모양의 지역’을 갖는데 미드웨이 제도, 알류산열도,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 그리고 오키나와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하였다.³⁵⁾

애치슨 선언에 포함된 극동방위선은 미국의 군부, 특히 당시 극동군 사령관 맥아더의 구상을 정치적으로 설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³⁶⁾ 즉 한반도가 방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72~73. 커밍스는 애치슨이 순진하게 공산권에게 청사진을 제시했거나 미국의 전쟁억제가 실패한 것이라는 판단은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Cumings, Bruce, *op. cit.*, p. 427.

34) Paper, To Secretary of State from George F. Kennan(14 Mar, 1948), 『한국전쟁자료총서 7』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미 국무부정책기획실문서, Country & Area Files, Japan & U.S.S.R.(1947~1954)* pp. 21~30, 커밍스의 경우 방위선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 애치슨이 이행 당사자인 군부와 토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설득력이 부족한 분석으로 보인다. Cumings, Bruce, *ibid.*, p. 421.

35) Cumings, Bruce, *ibid.*, p. 422.

36) 도진순의 경우 애치슨 연설은 NSC 48 등 당시 미국 행정부의 정책을 대변한 것이었으나 아시아에서 분명한 군사적 반공정책과 새로운 방어선을 주장하는 맥아더 등의 주장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질적인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의 시행에 있어 군사문제를 담당하는 군부와 국제문제를 담당하는 국무부간의 정책 이해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신복룡, 『한국전쟁과 미국 유도설 D. 애치슨의 연설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서울: 한울아카데미, 2001), 601~624쪽, 박명립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나남출판, 1996), 551~569쪽, 도진순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연설과 하나의 전쟁논리」, 『한국사연구』 제119집(2003), 225쪽.

위선에서 제외된 것은 마한(Alfred Mahan) 이후 미국의 군사전략가들 사이에 흥미하고 있던 ‘해상권에 의한 세계 제패’의 일환이었고, 맥아더는 이 전략에 매우 경도되어 있었다.³⁷⁾ 애치슨의 정책은 봉쇄와 국제주의의 혼합이었으며, 이는 1947년에 이루어진 절충의 표현이었다. 만일 굳건한 중·소 동맹체제가 출현한다면 팽창을 저지해야 하고 만일 중국을 소련으로부터 분열시킬 수 있다면 중국을 세계체제 속에 엮어 넣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³⁸⁾

실제로 애치슨의 방어선은 그 토대를 정치경제에, 즉 정치적 및 경제적 수단을 통해 일본에서 인도 일대까지의 방대한 지역을 확보·개발하게 될 ‘거대한 초생달’에 두고 있었다. 실제로 NPC 클럽연설 이틀 전의 한 비밀 증언에서 애치슨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의 실제적 중심을 “일본을 한쪽 끝으로 그리고 인도를 다른 한쪽 끝으로 하여... 연결되는 초승달 내지 반월 으로 묘사했으며 또 일본의 경제적 필요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³⁹⁾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역시 애치슨 연설은 NSC 48/2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해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산주의의 위협을 소련군에 의한 ‘군사적 공격’과 국지적인 ‘전복과 침투’로 명확히 구별하고, ‘전복과 침투’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수단에 의해서는 저지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애치슨의 연설이 방어선 안쪽의 지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은 무력으로 저지할 것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격은 묵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즉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방어선의 유지를 선언함과 동시에, 그 밖의 지역에서는 전복이나 내부 침투에 대한 취약성을 극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오히려 군사적 대응과 내부적 안전의 강화를 지역적으로 짜 맞춘 중층적인 억지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⁴⁰⁾ 이미 이러한 미국의 도서 방위선 전략은 1949년 3월 13일 《New York Times》의 기사에도 나타나 전 세계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이미 알려

37) 미국의 해양력 이론에 의한 태평양지배 전략은 다음 논문을 참고 이상호 「미국의 태평양안보정책과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제9집(한국미국사학회 1999).

38) Cumings, Bruce, *op. cit.*, p. 415.

39) *Ibid.*, p. 423.

40)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저·현대사연구실 역, 『韓國戰爭: 美國의 介入過程』(청계연구소 1986), 60-61 쪽

진 사실이었다.

1949년 3월 1일 맥아더는 영국 언론인인 프라이스(Word G. Price)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침략에 대한 “우리의 방어위치는 미 대륙 서부해안에 기초하고 있다. 태평양은 가능한 적의 접근 공격로로서 고려되고 있다. 이제 우리의 방어선은 아시아 해안에 연하는 군도를 통하게 된다. 그것은 필리핀으로부터 출발하여 주 요 새지인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류큐 열도로 이어지며 일본과 알래스카에 연하는 알류산 열도를 통해 후방으로 굽어진다”라고 했다.⁴¹⁾

1949년 여름 한국으로부터 미군의 병력을 마지막으로 철수시키면서 맥아더는 스스로, 한국이 “미군부대의 주둔지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왜냐하면 “아시아 대륙에 미국지상군을 정착시키는 것”은 ‘그 자체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부대가 거기 머물렀다면 그것은 뒷에 걸렸을 것이라고 언급했다.⁴²⁾ 태평양을 ‘미국의 지배에 의한 호수(Anglo-Saxon Lake)로 간주하던 군부와 맥아더는 한국을 방위선에서 배제했으며 1948년 4월 각료들의 조언에 따라 트루만은 양분된 국가의 어떤 측에 의한 군사적 행동도 미국에 의한 개전(開戰)의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⁴³⁾ 미군이 철수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해 맥아더는 상원위원회 앞에서 “나의 책임은 단지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뿐이었다. 나는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국에 관한 정책이나 행정 및 지휘 책임과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다.⁴⁴⁾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발표문에서는 맥아더의 주장은 이와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었다. 1947년 2월 맥아더가 미 의회에 전달한 서한 가운데 한국에 관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미 의회에서는 미군사비 예산의 삭감에 반대하는 주장이 개진되고 있는데 이 반대주장은 미국에 송고한 임무가 부과되고 있는 조선사정과 부합하는 것이

41) 전문은 다음과 같다. Now the Pacific has become an Anglo-Saxon lake and our line of defense runs through the chain of islands fringing the coast of Asia “It starts from the Philippines and continues through the Ryukyu Archipelago, which includes its main bastion, Okinawa. Then it bends back through Japan and the Aleutian Island chain to Alaska.” 《New York Times》, 1949. 3. 2, 22면 Higgins, Trumbull, *op. cit.*, p. 8; Manchester, William, *op. cit.*, p. 642.

42) Manchester, William, *ibid.*, pp. 636~637.

43) *Ibid.*, p. 639.

44) MacArthur, Douglas, *op. cit.*, p. 319; Manchester, William, *ibid.*, pp. 639~640.

다. 또 나는 미군의 일본 점령이라는 관점에서 미국점령업무의 책임에 관하여 토론한 바 있었는데 그 중의 대부분은 조선을 목표로 말한 것이다. 즉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조선에 안정하고도 자유스러운 정부를 수립하는데 있어 미국은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는 공약을 우리는 조선에 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⁴⁵⁾

특히 한국 언론과의 회견이나 한국의 인사들에게는 외부 침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곤 하였다. 1947년 3월 합동통신사 사장인 김동성과의 회담에서도 맥아더는 자신이 한국과 긴밀한 관계였음을 토로하고 있다.

나와 조선과의 관계는 매우 깊다. 내가 어렸을 때에 나의 작고한 부친 「아더·맥아더」장군은 조선 고종황제로부터 청동제 화로를 받은 적이 있었으며 나 자신은 1905년 日露戰爭 당시에 연락장교로 조선을 방문한 일도 있었다.⁴⁶⁾

여기서 맥아더는 ‘코레히들’ 작전에서 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고종황제의 선물을 분실한 것을 매우 아끼고 있다는 말을 전하였고 이를 전해들은 이승만은 정부 수립식 직후 그에게 질동제(質銅製) 향로 1좌(座)를 기증하기도 하였다.⁴⁷⁾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정부수립일 단상에는 이승만, 하지, 맥아더가 나란히 도열해 있었다. 특히 맥아더는 연합국최고사령관의 지위로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축사를 하기 시작하였다.

45)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 1947년 2월 25일

46) 《New York Times》, 1905. 8. 27 2면; 뉴욕타임즈 기사에 의하면 1905년 8월 26일 당시 고종황제를 알현한 미국의 군 관계자는 아더 맥아더(Arthur MacArthur) 소장과 그의 부관인 웨스트(Parker W. West) 대위였다. 더글러스 맥아더는 그해 10월에 부친인 아서 맥아더의 부관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교통수단을 감안한다면 그는 적어도 1905년 말이나 1906년 초에 부친인 아더와 합류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더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순방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더글러스가 한국에 왔다면 그것은 1906년 초일 것이다. 더욱이 러일전쟁은 1905년 5월 대한해협에서의 대해전에 의해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었고 강화조약은 1905년 9월 5일에 체결되었으므로 맥아더 자신이 러·일전쟁 시기에 한국에 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7) 이 질동제 향로는 이왕가 소장으로 18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이전에 아더 맥아더가 고종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서울신문》, 1948년 8월 16일

본관은 40년간 여러분의 애국자들이 외국의 압박의 기반(羈絆)을 벗느라고 분투하는 것을 감탄해가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의의 위력이 용진하는 이 찰라에 그 정의의 개선은 근대역사의 일대 비극인 귀국 강토에 인위적 장벽과 분할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이 장벽은 반드시 파괴하여야 될 것이요, 또한 파괴될 것입니다. 나의 나라의 국민은 귀국민과 다년간 각별한 우호적 관계를 가졌습니다. 일찍이 1882년 양국민 간의 우호통상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 영원한 평화와 우의를 선포하였습니다. 미국 국민은 이 서약에서 이탈한 적이 결코 없느니 만큼 여러분은 그 不可分 不可離의 우호관계를 계속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⁴⁸⁾

여기서도 맥아더는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⁴⁹⁾ 계속해서 그는 1948년 10월 이승만이 도쿄로 맥아더를 방문하며 환담했을 때, 한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 있게 이승만에게 자기는 남한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남한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보호하듯이 하겠다고 말하였다.⁵⁰⁾ 더욱이 맥아더는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미국방장관 존슨과의 도쿄회담에서 미국은 이승만 정권을 지지함으로써 공산주의의 폭력과 음모로부터 한국을 방위하여 왔는데 한국의 전략적 가치로 보아 계속 원조해야 하며, 일본을 미국 방위의 요충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도 한국을 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고 강조하기도 하였다.⁵¹⁾ 맥아더의 회고록에 의하면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미국무장관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한 연설에서 한국과 자유중국을 “우리의 방위선 밖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러한 애치슨의 극동문제에 대한 오관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이 문제를 알려주기 위해 애치슨을 도쿄로 초청했었으나 그가 오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⁵²⁾

48) 《한성일보》, 1948년 8월 16일

49) 그러나 그의 발언이 新국가 건설의 도정에 있는 남한 정치 세력을 위한 찬사라 하더라도 역사인식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1905년 카쓰라·태프트 밀약에 의해 대한제국의 주권을 부정하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당시 러일전쟁 시찰단으로 아시아 지역을 순방했던 맥아더가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즉 맥아더의 언급에는 필리핀과 한국에 대한 상호 분할 점령이라는 정치적 계략에 대한 어떠한 역사적 사죄나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50) 《한성일보》1948년 10월 23일.

51) 《경향신문》1950년 6월 21일.

그러나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도서방어선의 개념과 그 내용의 설정은 국무부와 군부와의 오랜 기간에 걸친 협의 과정의 산물이었으며 그 누구보다도 맥아더 자신이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맥아더의 지적은 자신의 책임을 애치슨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볼 때 단지 그의 언행은 수사학적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그의 이중적 언술 구조의 일면을 다시금 극명하게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V. 맺음말

1961년 미 재무부에서는 맥아더를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수호자, 필리핀의 해방자, 일본의 정복자, 한국의 방어자’라고 새긴 금메달을 주조하였다.⁵³⁾ 여기서 한국의 방어자라는 의미는 한국전쟁에 있어 그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는 의미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전 맥아더의 대한인식을 살펴보면 한국에 대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거의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단지 일본에 대한 종속변수로서 생각을 했을 뿐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였다. 맥아더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그 자체가 뒤튼린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것이 많았다. 조미수호통상조약에서부터 시작되는 한미관계의 지속성, 남한을 미국의 본토와 같이 지켜주겠다는 발언 등 대외적인 언급과 미국 정부 내의 고위 관료들과의 비망록 교환이나 맥아더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한국에 대한 책임 회피 등은 그의 이율배반적 언술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렵다.⁵⁴⁾

이 논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문제점을 해명하려고 하였다. 하나는 맥아더가 주한미군정에 대한 관할권을 언제까지 행사하였는가의 문제와 애치슨선언에 나타나는 태평양방어선 구상이 맥아더를 중심으로 하는 극동군사령부의 아시아 우선주의자들에 의해 이미 널리 확고하게 인지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에 대한 관할

52) MacArthur, Douglas, *op. cit.*; 맥아더 저·반광식 옮김, 『맥아더회고록(II)』(일신서적출판사 1993), 158쪽.

53) Manchester, William, *op. cit.*, p. 832.

54) 국홍주, 「맥아더 그 두 개의 얼굴」, 『마당』 11 월호(1984), 92~97 쪽

권 문제를 살펴보면 미군정은 1948년 3월까지의 맥아더 극동사령부의 관할 하에 존속하고 있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그의 실질적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었고 정치·군사적 문제 있어서 그의 책임과 권한은 중대한 것이었다. 물론 그 이후는 철군에 관한 문제가 주 대상이기 때문에 합참으로 관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아더는 대외적인 발표와 내부적인 회의석상에서의 한국에 대한 전략적 판단을 상이하게 하고 있었다. 이러한 그의 이중적인 언술 구조 때문에 아직도 일부 연구자들 사이에 맥아더의 대한정책과 인식은 상당히 우호적이고 그를 한국현대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들에게 청사진(blue print)을 제공했다며 비난을 받았던 1950년 1월 12일 애치슨 선언 역시 단지 맥아더사령부에 의해 주도된 극동전략의 재진술에 불과할 뿐이었다. 확실히 1948년 3월 정책기획실 실장이었던 케난과의 대화에서 태평양방어선을 제시하고 한국을 배제하고 있었으며, 1949년 3월에도 영국 저널리스트와의 대화에서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었다. 한국전쟁 이전 맥아더의 한국에 대한 발언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학적 허구에 지나지 않았고 대한인식과 정책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New York Times》, 《한성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국홍주, 「맥아더 그 두 개의 얼굴」, 『마당』 11월호, 1984.
 군사편찬연구소 편, 『한국전쟁자료총서 7』 *Records of the Policy Planning Staff of the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정책기획실 문서, Country & Area Files, Japan & U.S.S.R.(1947~1954)*.
 도진순, 「1950년 1월 애치슨의 프레스클럽 연설과 하나의 전쟁논리」, 『한국사연구』 제19집 2003.
 로버트 T. 올리버 저·박일영 역, 『이승만비록』 서울 한국문화출판사 1982.
 맥아더 저·반광식 옮김, 『맥아더회고록(II)』, 서울 일신서적출판사 1993.
 박명림,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II: 기원과 원인』, 서울 나남출판 1996.
 서주석, 「인천상륙작전의 결정 경위와 전개과정」,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2000).
 송인영, 「인천상륙작전의 전쟁사적 평가 및 의의」, 『인천상륙작전 5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국전쟁

- 과 인천: 평화와 협력을 향하여』(2000).
-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1.
- 신복룡 편, 『한국해방진후사논저 1: Journals』, 서울: 선인문화사, 1998.
-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저·현대사연구실 역, 『韓國戰爭: 美國의 介入過程』, 서울: 청계연구소, 1986.
- 이상호, 「미국의 태평양안보정책과 한국전쟁」, 『미국사연구』 제9집, 한국미국사학회, 1999.
- 이완범, 『38선 획정의 진실』, 서울: 지식산업사, 2001.
- 정용욱, 『해방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존 깐서 著·姜永壽 譯, 『英雄맥아더와 韓國動亂의 真相』, 서울: 建國社, 1952.
- 찰스 A. 윌로우비 著·陳奉天 譯, 『맥아더 將軍의 韓國戰秘史』, 서울: 時事通信社, 1957.
- 최상용,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서울: 나남 1988.
- _____, 「맥아더의 일본점령과 친황제」, 『亞細亞研究』 Vol.33 No.1, 1990.
- 하기와라 료(萩原 遼), 『한국전쟁: 김일성과 스탈린의 음모』, 서울: 한국논단 1995.
- 한태호, 「美國의 對日占領政策과 Douglas MacArthur」(1)~(3), 『日本學報』 Vol. 14~Vol. 16, 1985~1987.
- 후지와라 아키라 저·엄수현 역, 『日本軍事史』, 서울: 시사일본어사, 1992.
- C. L. 호그 지음, 신복룡·김원덕 옮김, 『한국분단보고서(상·하)』, 서울: 풀빛 1992.
- Clayton, James D., *The Years of MacArthur: Triumph and Disaster 1945~1964*. Boston: Houghton Mifflin Co. 1985.
- Courtney, Whitney, *MacArthur: His Rendezvous with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56.
- Cumming,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Vol. II: The Roaring of The Cataract, 1947~50*.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Gaddis, John L.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Gunther, John, *The Riddle of MacArthur-Japan, Korea and Far East*. New York: Harper & Brothers, 1951.
- Higgins, Trumbull, *Korea and the Fall of MacArthur: A Precis in Limite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0.
- Lee, Clark and Henschel Henschel, *Douglas Macarthur*. New York: Henry Holt and Company, 1952.

- MacArthur, Douglas, *Reminiscences*. New York: McGraw-Hill Book Company, 1964.
- Manchester, William, *American Caesar*. New York: Laurel, 1978.
- Kim, Nam G., *From Enemies to Allies: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U.S.-Japan Relations*. San Francisco: ISP, 1997.
- Schaller, Michael, *Douglas MacArthur: The Far Eastern Gener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Smith, Robert, *MacArthur in Korea: The Naked Emperor*.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2.
- Tucker, Spencer C. Editor,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Santa Barbara: ABC-CLIO, 2000.
-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5~1950*. Washington: U.S.G.P.O., 1969~1976.
- Weintraub, Stanley, *MacArthur's War: Korea and the Undoing of an American Hero*. New York: The Free Press, 2000.
- 竹前榮治 解説・今泉眞理 譯, 『GHQ日本占領史 1: GHQ日本占領史序説』, 東京: 日本圖書センター, 1996.
- 高野和基 解説・譯, 『GHQ日本占領史 2: 占領管理の體制』, 東京: 日本圖書センター, 1996.
- 竹前榮治, 『GHQ』, 東京: 岩波書店, 1983.

● 투고일 : 2005. 1. 31.

● 심사완료일 : 2005. 2. 23.

● 주제어(keyword) : 맥아더(Douglas MacArthur), 연합국최고사령관총사령부(GHQ/SCAP), 도서방위선(Offshore Island Defense Perimeter), 하지(John R. Hodge), 주한미군정사령부(USAMGIK)